

2011.07.25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 중서부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가격 상승 우려

1. FINANCIAL TIMES(2011.07.19) 주요 내용

- 미국 중서부 지역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작물들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.
 - 미국 기상청(National Weather Service)은 “주요 곡물재배지인 오하이오 벨리(Ohio Valley)의 동쪽지역과 텍사스(Texas), 다코타(Dakotas) 주는 고온 및 습도로 위험한 수준이다”라고 주장함.
 - 또한 기상청은 최근 중서부와 남동부지역의 주요 곡물재배지가 있는 지역에서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주의보를 발령함.
- 지금은 옥수수의 수분(pollination)시기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수분을 감소로 옥수수 수확량은 감소할 것이며, 현재 최저수준인 옥수수 재고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무역업체들 사이의 경쟁심화로 밀 가격 상승도 우려됨. 축산 농가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사료로 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.
 - 시카고상품거래소(CBOT)에서 옥수수 9월 인도분 가격은 2.3% 상승, 밀 인도분은 3.5% 상승함. 반면 대두 8월 인도분은 0.8% 상승함.
- USDA에 따르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2011년도 옥수수 생산량 중 상급 이상의 품질은 66% 수준으로 이는 전 주보다 3% 하락한 수치임. 대두 또한 상급 이상의 품질이 64% 수준으로 전 주보다 2% 하락함.
- 텍사스의 현지 전문가들은 축산업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.
 - 가뭄과 폭염으로 사료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들은 송아지들을 매각하는 등 축산업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함.